# 김소월 시집 2

차례

1. 죽으면?

2. 눈오는 저녁

3. 어버이

4. 愛慕[애모]

5. 그를쑴꾼밤

6. 粉[분]얼골

7. 半[반]달

8. 사노라면 사람은 죽는것을

9. 늦은 가을비

10. 봄과 봄밤과 봄비

11. 가련한 인생

12. 竹里館[죽리관]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1. 죽으면?

죽으면? 죽으면 도로흙되지.
흙이되기前[전], 그것이사름.
사름. 물에물탄것. 그것이살음.
서름. 이는 맥물에돌을살믄셈.
보아라, 갈바름에 나무입한아!

-《學生界[학생계]》3호(1920.7)p.42

# 2. 눈오는 저녁

바람자는 이저녁
흰눈은 퍼붓는데
무엇하고 게시노
가튼저녁 今年[금년]은……

섦이라도 쒸면은!
잠들면 맛날넌가.
니젓든 그사람은
흰눈타고 오시네.

저녁째. 흰눈은 퍼부어라.

-≪진달내옷≫ p.31

# 3. 어버이

잘살며못살며 할 일이안이라
죽지못해산다는 말이잇나니,
바이죽지못할것도 안이지마는
금년에열네살, 아들쌀이 잇섯서
순복에아부님은 못하노란다.

-《진달내옷》 p.56

# 4. 愛慕[애모]

왜 안이 오시나요.
暎窓[영창]에는 달빗, 梅花[매화]옷치
그림자는 散亂[산란]히 휘젓는데.
아니, 눈 싹감고 요대로 잠을들쟈.

저멀리 들니는것!
봄철의 밀물소래
물나라의 玲瓏[영롱]한 九重宮闕[구중궁궐],
宮闕[궁궐]의 오요한곳.
잠못드는 龍女[용녀]의 춤과노래, 봄철의 밀물소래.

어둡은가슴속의 구석구석……
환연한 거울속에, 봄구름잠긴곳에,
소솔비나리며, 달무리둘녀라.
이대도록 왜안이 오시나요. 왜 안이 오시나요.

—《진달래옷》

# 5. 그를 삼긴 밤

야밤즁, 불빗치밝하게
어렴프시 보여라.

들니는듯, 마는듯,
발자국소래.
스러져가는 발자국소래.

아무리 혼자누어 몸을뒤재도
일허바린잠은 다시 안와라.

야밤중, 불빗치밝하게
어렴프시보여라.

—《진달래옷》

# 6. 粉[분]얼골

불빗헤써오르는 샛보얀얼골,
그얼골이보내는 호젓한냄새,
오고가는입술의 주고밧는盞[잔],
가느스럼한손씰은 아르대여라.

검으스러하면서도 붉으스러한
어렴풋하면서도 다시 分明[분명]한
줄그늘우헤 그대의목노리,
달빗치 수플우흘 써흐르는가.

그대하고 나하고 또는 그게집
밤에노는세사람, 밤의세사람,
다시금 술잔우의 긴봄밤은
소리도업시 窓[창]박그로 새여빠져라.

—《진달내쏫》

# 7. 半[반]달

희멀씀하여 써돈다, 하늘우헤,
빗죽은半[반]달이 언제 올낫나!
바람은 나온다, 저녁은 칩구나,
희물싸엔 쑤렷이 해가 드누나.

어둑컴컴한 풀업는들은
찬안개우흐로 써흐른다.
아, 겨울은 깁펏다, 내몸에는,
가슴이 문허저나려안는 이서름아!

가는님은 가슴엣사랑까지 업세고가고
젊음은 늙음으로 밧구여든다.
들가시나무의 밤드는 검은가지
닙새들만 저녁빗헤 희그무려히 옷지듯한다.

—《진달내옷》

# 8. 사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하로라도 멧番(번)식 내생각은
내가 무엇하랴고 살랴는지?
모르소 사랏노라, 그럴 말로
그러나 흐르는 저냇물이
흘너가서 바다로 든댈진 댄.
일로조차 그러면, 이내몸은
애쓴다고 말부터 니즈리라.
사노라면 사람은 죽는것을
그러나, 다시 내몸,
봄빗의 불붓는 사태흙에
집짓는 저개아미
나도 살려하노라, 그와갓치
사는날 그날까지
살음에 즐겁어서,
사는 것이 이 사람의 본뜻이면
오오 그러면 내몸에는
다시는 애쓸일도 더업서라
사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진달내쏫》pp.213~214

# 9. 늦은 가을비

구슬픈 날, 가을 날은 괴로운 밤 꾸는 꿈과 같이
모든 生命(생명)을 울린다
아파도 심하구나 陰散(음산)한 바람들 세고
둑가의 마른 풀이 갈기갈기 젖은 후에 흩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도 門(문)밖 그림자 볼수록
한 줄기 煙氣(연기) 곁을 길고 파리한 버들같이
스러진다.

－1933년 5월 20일－

－《여성》39호(1939.6) p.100

# 10. 봄과 봄밤과 봄비

主任先生(주임선생) 얼굴이 내눈에 환하다.
오늘밤, 봄밤, 비오는 밤, 비가
햇듯~ 보슬보슬 회친회친, 아주 가이업게 귀엽게
비가 나린다, 비오는 봄밤,
普通學校三學年(보통학교삼학년), 비야말로, 세상을
모르고
가난하고 불상한 나의 가슴에도 와주는가?
五大江(오대강)의 이름 외이든 地理時間(지리시간),
津江(진강), 大同江(대동강), 豆滿江(두만강),
洛東江(낙동강), 鴨綠江(압록강),
무쇠다리우헤도, 무쇠다리를 녹일(스를듯), 비가 온다.
燈(등)불이 밝은것은, 自動車(자동차)가 들니는 소리,
이는 自動車(자동차)노래소래이라.
이곳은 國境(국경), 朝鮮(조선)은 新義州(신의주),
鴨綠江(압록강) 鐵橋(철교),
朝鮮人(조선인), 日本人(일본인), 中國人(중국인),
멧名(명)이나 될꼬 멧名(명)이나 될꼬
지나간다, 지나를간다, 돈잇는 사람, 또는, 씨니좃차
번드린 사람,
鐵橋(철교)우헤 나는 섯다. 分明(분명)치 못하게?
分明(분명)하게?

朝鮮(조선) 生命(생명)된 苦憫(고민)이여!
우러러보라, 하늘은 감핫고 아득하다.
自動車(자동차)의 멀니~붓고붓는 두 눈,
騷音(소음)과~냄새와 냄새와,
사람이라 어물거리는 다리우헤는 電燈(전등)이 밝고나.
다리아래는 그늘도 깁게 번듯거리며
푸른 물결이 흐른다, 구뷔치며 부얼신~.

—〈유고(동아일보)〉 p.5

# 11. 可憐[가련]한 人生[인생]

可憐[가련]한, 可憐[가련]한, 가련한 人生[인생]에
첫재는 살음이라, 살음은 곳 살님이라
살님은 곳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은 무엔고?
사랑은 곳 제가 저를 희생함이라,
그러면 희생은 무엇?
희생은
남의 몸을 내 몸갓치 생각함이라,

-<유고(동아일보)> p.10

# 12. 竹里館[죽리관]

은근하다 대수풀
그가운데 안자서
다시금 거문고에
긴 쉬파람 불어라.
밝은 달샌 화졋이
반가운듯 빗추네.

-〈유고(동아일보)〉 P.20